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식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발행인 : 이석하, 편집인 : 강규석

면 집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강문성·신찬석·안동환·여환명·윤희연·이기훈·이은진·조철훈)

2017학년도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 교육상 시상식



2017년 11월 7일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무궁화홀에서 제25회 상록농업생명과학대상, 제17회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상, 제15회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상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올해 상록대상의 영광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의 박영환 교수에게 돌아갔으며, 학술상은 식물생산과학부 양태진교수가 교육상은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가 수상자로 선정 되었다. 박영환 교수는 60년 역사를 가진 농생대 잠사학과의 학문영역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천연섬유학, 고분자공학, 재료공학에 기반을 둔 바이오소재공학 학문분야를 확립하여 의생명공학분야와 융합 발전을 이룩하는데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양태진 교수는 인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우수 학술지에 인삼 유전체와 진화, 실용화기술의 독보적인 연구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인삼의 유전체정보를 세계 최초로 해독하여 저명 학술지에 투고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태호 교수는 전공인 농업정책 분야에서 계량적으로 정책을 분석하는 체계를 세우는데 기여하고, 교육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전파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성낙인 총장, 박찬욱 교육부총장, 한인규 기금출연자, 서진호 선정위원장, 교육연구재단이사, 명예교수, 수상자 가족, 교직원 및 재학생 등 140명이 참석하였다.

2017학년도 2학기 서울대학교 교육상·학술연구상 시상식



2017년 11월 13일 개최된 '서울대학교 교육상' 시상식에서 김기선 교수(식물생산과학부)와 이동근 교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가 교육상을 수상하였다. 김기선 교수는 30여년 간 본교에 재직하면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힘써왔고, 20여 년간 매 학기 책임 강의 시간을 초과하여 열정적으로 강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동근 교수는 최신 연구성과를 학생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습한 이론을 방학 중 국내외 봉사활동 현장에서 적용하는 획기적인 시도로 효과적인 교육과 사회공헌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2017년 11월 20일 개최된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시상식에서 백남천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학술연구상을 수상하였다. 백남천 교수는 식물에서 기후환경 변화에 의한 갑작스러운 가뭄에 저항성을 높이는 조절유전자들을 찾아 기능을 규명하여 국제 우수 식물과학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10면_농기자가 간다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11면_기금출연 소식

6~8면_Interview
12면_농생대 사람들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성보화학 윤대섭 회장, 53억 7천만원 서울대 발전기금 추가 출연



성보화학 윤대섭 회장(농공학 49)이 2017년 12월 20일 53억 7천만원을 농업생명과학대학 동원장학기금으로 출연하였다. 동원장학기금은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윤대섭 동문은 현재 서울대발전기금 및 서울대농생대교육연구재단에 총 16,422,184,000원, 농공장학재단에 11,396,871,827원을 출연하였으며, 본교 장학사업 이외에도 학교법인 성보화학·성보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리 사회의 인재 육성에 크게 공헌해 오고 있다.

오정권 교수, 산림과학부 부임



오정권 교수(산림과학부)

오정권 교수가 2017년 9월 1일자로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오정권 교수는 본교에서 학사 및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본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전북대학교에 재직하였다. 오정권 교수의 전공은 목구조 및 공학목재이다.

〈오정권 교수 :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에 신규 임용된 오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큰 영광입니다. 모교에서 교편을 잡아,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기쁜 일이지만, 인재를 양성, 배출해야 하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사회와 산업에 기여하는 연구자로서 책임과 의무 또한 실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친근한 소통을 통해,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을 양성해내는 교육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일원으로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르침과 조언을 해주신 선배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직 미숙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손호경 교수, 농생명공학부 부임



손호경 교수(농생명공학부)

손호경 교수가 2017년 9월 1일자로 농생명공학부 식물미생물학전공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손호경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과정을 마친 뒤 박사학위(석박사통합과정)를 취득하였고, 이후 본교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식품바이오통합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재직하였다. 손호경 교수의 전공은 식물병생리학이다.

〈손호경 교수 : 식물미생물 전공으로 신규 임용된 손호경입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모교에서 학생과 연구원으로 보냈던 시간도 행복했었지만 이번에는 교수로 부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먹이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연구자”와 “교육자”로서의 큰 소명 앞에 두렵고 떨리는 지금의 마음을 기억하며 교수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식물병리학자로서 눈 앞의 연구 실적만을 좇지 않고 제 연구가 높은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선생”으로서 저 스스로가 먼저 철저히 윤리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감하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농생명공학도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학문과 삶에서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생대 막내 교수로서 아직은 어리고 부족하게 보이겠지만 선배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농생대 학생회 집행부를 살펴보다

농생대 학생회 집행부는 농생대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곳이다. 집행부는 더 나은 농생대를 만들기 위하여 매주 회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부족한 점은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나간다. 이 외에도 농생대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술자리 문화 개선> 등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학생사회에서 농생대 학우들의 목소리를 내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김정은 집행부원(작물생명과학 16)에게 현 집행부의 지난 사업과 향후 계획을 들어보았다.



제34대 농생대 집행부 진행 사업

제33대 농생대 학생회에서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켰고, 새로운 사업 또한 진행하였다. 집행부 내 자체 피드백으로 미흡한 점들을 보완하였고 그중 이벤트 사업과 새참사업의 경우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우 분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 진행했던 사업들로는 Human of CALS(농생대생 즉석 인터뷰), U-space 및 농생대 환경개선(엘리베이터 층수 개선 사업), 24시간 프린터기 설치 사업, 농생대 단위 룽패딩 공동구매 사업이 있었다. 더불어 기존 사업 자료의 부재로 여자화장실 벨 점검에서부터 시작한 치안팀 사업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단-회장단 간담회'도 거치며, 농생대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확장되고 있다고 치안팀장 김정은 학우가 전했다.

방학 중 활동계획은?

이번 방학 기간 사업은 농생대 18학번 신입생들을 위한 활동 위주로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1월 중순부터는 페이



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 <새내기 허니팁>을 재연재하여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자 한다. 2월 중순부터는 '실험복 공동구매 사업'과 '중고책 장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사업을 통해 학우들이 실험 수업에 필요한 실험복을 비교적 쉽게 구매하고 저렴한 가격에 교양 및 전공 서적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써 내려가는 농생대 학생회

학생회에서는 많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나 잘 모르는 학우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학생회와 학우들과의 적극적인 의견 나눔 및 참여는 상승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2018학년도 농생대 학생회에서 제34대 농생대 학생회 선거에서 당선된 '아로새김' 선본의 기조인 '함께 써 내려가는 농생대 학생회'에 걸맞게 학우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자치계시판 및 소리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학우들과의 더 활발한 소통이 기대된다.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 모두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농생대 학생회 옐로아이디를 통해 전달될 수 있으니, 더 나은 농생대 학생사회를 위한 학우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해 본다.



미얀마 예진농업대학교와의 학술교류 및 학생교환협정 체결



2017년 12월 19일 우리 대학과 미얀마 예진농업대학교가 학술교류 및 학생교환협정을 체결하였다. 예진농업대학교는 미얀마의 유일한 국립농업대학교로 총 7개의 농업전공 및 6개의 지원학과에서 매년 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5년제 대학이다. 이번 협정체결은 Myo Kywe 총장이 지난 2016년 10월 28일 우리 대학을 방문, 양 대학의 협력방안을 논의한 결과로 추진되었다. 이를 계기로 예진농업대학교는 우리 대학의 우수한 교육 및 연구력을 도입하게 되며, 우리 대학은 미얀마의 우수한 기후, 토양, 자원을 활용한 해외 농업 연구를 기대하고 있다.

호주 바이오엔진(Bio and Gene Pty. Ltd.)과의 산학협력 협약 체결



2017년 11월 28일 우리 대학은 호주의 바이오엔진(Bio and Gene Pty. Ltd. 대표 이사: Andrew Han)과 상생할 수 있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바이오엔진은 신약 및 기능성식품 생태계 구축을 통해 웰니스 사업을 주도하는 호주 기업으로, 우리 대학의 호주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엔진은 이번 방문 기간에 퀸즐랜드대학, 시드니대학, 그리피스대학과의 교류를 주선하여, 우리 대학과 호주 대학이 산학협력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졌다.

2017년도 하반기 교수학사협의회 개최



2017년 12월 13일 38동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컨벤션센터에서 2017년도 하반기 교수학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5개 행정실 주요 업무보고, 학술림 및 수목원 무상양여 관련보고, NICEM 현황보고, 신임 박영준(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오정권(산림과학부), 손호경(농생명공학부) 교수의 소개와 연구발표, '야구와 인생'이란 주제로 박노준 우석대 교수의 외부명사 특강,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강을 마치고 만찬을 하며 자유롭게 교수 상호간 대학 현안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하 학장 외 집행부 및 전임교원 총 68명이 참석하였다.

2017학년도 CALS 외국인 교수, 학생 및 연구원 초청행사 개최



2017년 11월 23일 락구정에서 우리 대학 소속 외국인 교수, 학생 및 연구원을 초청하여 「2017 CALS International Night」 행사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나누고 친교의 시간을 갖고자 개최하였으며, Hong Sok(Brian) Kim 교수(농경제사회학부)의 진행 및 다트게임, 제기차기, 투호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제공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하 학장, 김관수 교무부학장, 김용노 학생부학장, 강규석 기획부학장뿐 아니라 강병철, Segonzac Cecile Marie Helene 교수(이상 식물생산과학부)와 외국인 학생 및 가족 50여명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7학년도 화농상 시상식



2017년 11월 23일 교수회관 4회의실에서 제25회 화농상 시상식을 개최 하였다. 올해 화농상의 영광은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기택 교수에게 돌아갔다. 이기택 교수의 '에멀전에서의 폐놀화합물 산화 안정성 효과'라는 연구는 향후 다양한 기능성 농식품 분야에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 화농상 수상 논문으로 선정 되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석하 학장, 최양도 선정위원장, 강규석 기획부학장, 김용노 학생부학장, 권순국, 이경준, 최윤재 화농연학재단 이사, 교직원 등 50명이 참석하였다.

故현신규 명예교수, '제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2017년 11월 7일 서울대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7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여식'에서 故현신규 서울대 명예교수가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故현신규 명예교수는 세계적인 임학자이자 육종학자로, 황무지나 다름없던 1950년대 한국 임학계의 초석을 마련하며 한국임학회, 한국육종학회의 창립과 운영을 주도하였고 한국 임학의 제도화에 공헌하였다. 특히 미국 원산지인 리기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의 교잡을 통해 리기테다 소나무를 국내에 보급하였다. 포플러 교잡연구를 통해 은수원사시나무(은백양+수원사시나무)의 육종을 이뤄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치

산녹화의 초석을 다졌으며 우리나라 육종학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농업진흥청장, 육종학회장, 농업과학협회장, 산림청 임목육종연구소 연구고문, 한국포플러위원회 부회장, 학술원 원로회원(임학 분야)을 역임하였다.

제1차 농림축산식품생명과학 정기포럼 개최



2017년 11월 1일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에서 제1차 농림축산식품생명과학 정기포럼을 개최하였다. 농림축산식품생명과학분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을 통해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정기 포럼이 시작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허태웅 실장이 '농식품 산업의 비전 및 상호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마치고 참석 교수들과 자유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포럼이 진행되었다. 학장 외 농생대 교수 17명이 참석하여 농식품 산업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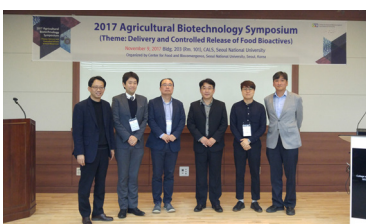
남북농업협력 활성화 관련 세미나 개최



2017년 12월 11일에 우리대학 북한·해외농업연구소(소장: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는 200동 3006호 소회의실에서 '통일대비 남북 농업협력 활성화 방향 : 해외농업협력 및 개발, 남북 농업협력 추진'이란 주제로 남북 농업 협력 활성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 하였다. 북한·해외농업연구소는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 대학의 역할을 모색하고, 앞으로 추진 가능한 학술 교류 및 농업협력 사업을 도출함으로써 선제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농업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고자 관련 연구와 세미나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전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차관(농업교육 81)의 특강과 함께 참석자들의 토

론이 진행되었으며, 본 세미나에는 교수 및 대학원생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심포지엄 개최



2017년 11월 9일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CFB)는 203동 101호에서 「Delivery and Controlled Release of Food Bioactives」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유용물질 전달체계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인 일본 Osaka 대학 Keishi Suga 교수, 뉴질랜드 Massey 대학 Sungje Lee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최승준 교수, 서울여대 민세철 교수, 성균관대 반중진 박사, 본 연구소 정호섭 박사를 초빙하여, 식품 및 바이오산업부에서 기능성 유효 성분의 보호와 목적지 전달 및 조절 방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전달체에 관하여 최근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농생대 농구동아리 ‘새턴’

농생대 대표 농구 동아리를 넘어 교내 대표 농구 동아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턴. 그들의 농구에 대한 열정을 알아보고자 이번 호에서는 농생대 농구 동아리 새턴 회장 김준수(작물생명과학 14)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농생대를 대표하는 농구 동아리

새턴의 역사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된다. 당시 수원에 위치하고 있던 농생대에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새턴’이 처음 탄생하였다. 구성원들이 토성의 모양이 바스켓 속에 농구공이 들어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하여 토성의 영어 이름인 ‘새턴’을 동아리 이름으로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2004년 수원에서 관악으로 농생대가 자리를 옮기며 동아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역사가 깊은 만큼 많은 선배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관악에 자리 잡아 농생대를 대표하는 농구 동아리로 남게 되었다. 선후배 가리지 않고 모두가 농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새턴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모두가 하나 되는 동아리 새턴

김준수 회장은 “농구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인 만큼 새턴은 종합체육관에서 매주 연습을 하고 교내 동아리들과의 리그도 성실히 참여한다”고 전했다. 또 종합체육관 이외에 교내의 야외 코트에서 자유 및 소규모 연습도 비정기적으로 진행한다고 한다. 운동을 하는 모임인 만큼 김준수 회장은 “성실하게 연습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까지 동아리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며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농구 동아리라고 해서 농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엠티나 홈커밍파티, 그리고 연습 후의 뒷풀이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스스럼없이 지내고 새턴의 발전을 위해 열

심히 노력한다고 한다. 농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만큼 모든 구성원들이 ‘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쓴다. 이 노력의 결과 새턴은 다른 교내 동아리들과 견주어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되었다.

단과대 동아리라는 울타리를 넘어



새턴은 농생대 동아리지만 농구에 대해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사회대, 공대 등 단과대를 가리지

않고 상시 모집 중이다. 농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이들의 열정은 교내에서의 경쟁에 그치지 않고 각종 외부 대회 출전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외부 대회에 참가하는 경쟁팀들은 체육 대학 동아리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각 학교를 대표하는 팀들이다. 2017년에는 서울권 단과대 동아리 대회인 ‘인사이드스터프배 캠퍼스 리그’에 참가해 우승하며 그들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개방성과 외부 경쟁력은 새턴 동아리원들이 갖는 자부심의 근원이다.

두 마리 토끼

모든 동아리들은 각자의 목표가 있다. 김준수 회장은 “새턴이 동아리 구성원들의 참여와 재미를 보장한다는 동아리로서의 목적과 교내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하나의 팀으로서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실 실력과 재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새턴은 이미 교내외 대회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왔고, 다양한 친목 활동들을 통해 재미를 선사하고 있다. 이들은 연습과 대회 시합이 끝나면 뒷풀이나 한강과 놀이동산 나들이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진다.

김준수 회장은 “새해에 코트 안에서는 연습을 더욱 체계화하고, 코트 밖에서는 친목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실력과 재미를 모두 갖춘 팀으로서 발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턴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부탁하자 김준수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농구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실 분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새턴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

■ 학생기자단 제6기 김수연, 제9기 남형철

남재철 기상청장(농학 79)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아니나 다를까 남재철 동문이 꺼낸 첫마디는 날씨였다. 30년동안 날씨와 함께한 남재철 동문에게 날씨는 여전한 관심사였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밝힌 그답게 까마득한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번 호에서는 기상청장을 맡고 있는 남재철 동문(농학 79)을 만났다.

농학과 학생에서 기상청장까지



남재철 동문은 1979년 서울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나 먹고사는 것이 어렵던 시절 ‘농업 기사가 되어 모두가 맛있는 쌀밥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농학과를 선택하였다 고 회상했다.

농학과 진학 후 이은웅 학장님의 지도하에 재배법론을 배

우며 수량 구성 3요소 중 재배기술과 품종은 개발이 가능하나 환경은 제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농업적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농업 기상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고 한다.

그는 그 후 기상학 석사를 취득하고 농림 기상학에 관한 일을 하고 싶어 농촌진흥청에 지원하여 합격하였지만 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기상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남재철 동문은 “기상청에서 농업 기상학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떠올리며 이후 일반 기상학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재철 동문은 기상청장이 된 지금도 농림기상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을 만큼 농림기상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상청장으로서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과의 협업을 통해 농림기상학적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기상청

기상청의 업무는 크게 예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기상정보의 산업 활용을 지원하는 일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상청의 업무들을 총괄하는 것이 바로 남재철 동문이다.

남재철 동문은 “예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 기상청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항상 모든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소탈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겸손하게 예보가 정확하

지 않을 때를 이야기했지만 최근 기상청에 대한 여론은 비난보다 칭찬에 가까웠다. 바로 포항 지진 당시 정확하고 빠른 지진 속보 또한 기상청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남재철 동문은 경주 지진 이후 지진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지진관측을 늘린 결과라고 답했다. 매일 만나는 예보부터 평소 잘 드러나지 않는 지진 분야까지 우리 삶에 녹아 있는 기상청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예보 뿐 아니라 기상 정보의 산업 활용 또한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한 업무이다. 그는 “날씨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산업이 없다”며 기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골프장의 농약 뿌리는 시기나 냉방기 생산량 예측’ 등 생각지도 못한 분야까지 기상 정보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에서의 날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미래의 기후 변화와 식량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상 기상에 대비한 농업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기상학과 많이 관련된 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팜’에 대해 언급하며 농촌진흥청과 긴밀한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남재철 동문의 목표

기상학에 관련된 연구자로서 기상청장이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재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전하며 현직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퇴직 후에는 공직자로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찾아가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농림기상학회에 꾸준히 관여하는 것”도 남재철 동문의 목표 중 하나라고 전했다.

농생대 학생들에게 한마디

남재철 동문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도전정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부정적인 마인드는 창조적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전하며 학생들이 어떤 일든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는 도전정신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사람들이 공업이나 의학에 비해 농업을 약하게 보지만 농업은 정말 중요한 산업”이라고 전하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그는 “농업이 국민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들이 농업에 대해 배우고 이를 책임진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단순히 한 분야만을 고집하는 것 보다 다른 분야와 융합하고 교류하여 꾸준히 목표를 이루어나면 좋을 것이라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 학생기자단 제6기 김수연, 제9기 김민지, 제9기 정민정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스물한 번째 주인공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기창석 교수!

기창석 교수는 2003년 우리 대학 생물자원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동 대학원 바이오소재공학전공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 지능형텍스타일시스템연구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2010년부터 약 3년 간 아모레퍼시픽에서 기술연구원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012년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미국 Indiana University Purdue University Indianapolis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 뒤 2014년에 본교 바이오소재공학전공 교수로 부임하였다.



기창석 교수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님이 현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창석 교수는 고등학교 시절 물리와 화학을 모두 좋아했지만, 화학 공부에 더 흥미가 있었고 자신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전공 진입 과정에서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한 결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 현재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수님의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대학 시절 기창석 교수는 학업에 열중하는 시간 이외에는 아르바이트나 과외를 하느라 재밌게 놀았던 기억은 희미하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일찍부터 연구에 흥미를 가져 실험실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2001년 학부 3학년에 실험실에 들어가 2009년 박사 후 연구원 과정까지 9년 동안 연구에 참여했다. “남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스스로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의 성격이 연구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오랜 실험실 생활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기창석 교수는 매순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다. “앞으로의 나날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고민만 하기보다는 일단 눈 앞에 주어진 일들을 해본 후 그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꿈을 이룰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학생들이 각자의 취향과 적성을 찾아 자신만의 지향점을 찾고 학교에서도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서 추천



『로마인 이야기』 (저자 : 시오노 나나미)

기창석 교수가 추천한 책은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鹽野七生)의 <로마인 이야기>이다.

총 15권으로 이루어진 이 시리즈는 기원전 8세기 로마의 건국에서 멸망에 이르기까지 약 1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로마의 역사를 연대기적인 서술 방식을 피하고 이야기하듯 풀어쓰면서 이에 담긴 교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첫 시리즈가 출간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오래도록 전 권이 고루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스테디셀러다.

기창석 교수는 “로마인들이 팍스 로마나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광대한 제국 건설의 토대가 된 그들의 관용과 합리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소개하며, 대학원 시절 이 책을 읽고 역사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로마 사회의 모습과 로마인들의 사고방식을 살펴보면, 앞으로 행복하고 안정적인 사회 구축을 위해 구성원들이 어떤 철학을 가져야할지 고찰하는 기회를 주는 책”이라며 이 책을 추천하였다. 덧붙여 그는 종교 전쟁 이면에 감춰진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십자군 이야기>도 함께 추천하였다. 기창석 교수는 역사로부터 얻는 교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역사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전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기창석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의 김기석 교수이다. 김기석 교수의 추천 도서는 다음 호에서 만나볼 수 있다.

▶ 학생기자단 제7기 성가영, 제9기 오윤금

〈2017. 11. 15 농수축산신문〉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유해성 평가기준 필요 전문가 좌담회…야외노출 실험은 변수 많아 적용에 무리



생태계와 환경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유해성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본지 주관으로 지난 10일 본지 회의실에서 열린 ‘엇갈린 해석 네오니코티노이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에서 급성독성이나 소규모 포장 등에 대한 실험은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장기간의 야외 노출 실험은 진행되지 않아 전문적인 자료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한 전문가 패널은 우리나라의 유해성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의 한국양봉학회 부회장(안동대 교수)은 “네오니코티노이드의 경우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약제여서 EU(유럽연합)나 미국의 평가 정보만을 가지고 유해성을 결정하기는 부족한 만큼 우리나라의 유해성 평가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한 서울대 교수도 “미국은 조방적인 환경이고, 유럽은 분진이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 환경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도 우리 나름의 평가 방법과 이를 위한 노출 독성 연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태 기자

〈2017. 12. 13 대전일보〉

“합덕제는 관개농업 발전 이정표” 당진시, 합덕제 연구 포럼



올해 10월 세계관개시설물유산으로 등재된 당진 합덕제의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당진 합덕제를 마주하다 : 역사적 가치의 재발견)이 13일 당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한국배수관개위원회 이승원 이사는 합덕제가 세계관개시설물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로 관개농업 발전의 이정표이자 식량증산의 우수한 증거자료라는 점, 설계 및 시공 기술 등의 공학적 관점에서 당대를 앞선 시설물이라는 점, 과거 역사문화적 전통의 특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기조발제 이후 이정재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

행된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최진용 교수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이경복 연구부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최진용 교수는 농업수리학적 관점에서 수치지도로 산정한 유역면적과 저수량 추산 및 홍수량 산정을 통해 합덕제가 오늘날 농업용 저수지와 비교해 상당히 넓은 면적에 관개했음을 발표했으며, 사료와 자료의 추가수립을 통한 농업수리학적 추가연구와 더불어 인근 토지의 이용변화 등에 관한 연구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

한편 시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합덕제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강화하고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차진영 기자

〈2017. 12. 19 한국영농신문〉

소비자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소비하게 될까?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 랩 2018 푸드 트렌드 보고서 발표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 랩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2018년 식품 소비행동 전망을 발표한다.

20일 오후 7시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에서 열리는 ‘2018 푸드 트렌드 Top 7: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식품 소비행동 전망’은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 랩이 4개월에 걸쳐 분석한 결과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1월 30일 농업식품자원부가 주최한

“2018년 식품외식산업 전망대회”에서 일부 발표되었으며, 좀더 자세한 내용을 강의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랩의 수장 문정훈 교수가 준비하는 이번 발표에서는 식품 소비 다양성, 간편식, 대용식, 홈쿠킹, 온라인 농식품 시장, 편의점 도시락, 지속가능한 농식품 등 총 7가지 주제에 걸친 2018년 푸드 트렌드를 전하며, 강연의 내용은 2018년 2월 중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이아름 기자

스마트푸드 DM 배용석 대표 (식품공학 93)



바야흐로 스마트 전성시대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뮤직 등 현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주요 화두는 단연 ‘스마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스마트푸드 디엠’은 이 시대의 스마트 트렌드와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접목시킨 흥미로운 기업이다. 이번 호에서는 스마트푸드 디엠의 배용석 대표를 만나보았다.

농기자 안녕하세요.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배용석 대표(이하 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의학 석사과정을 마친 뒤, 스마트푸드 디엠의 CEO를 맡고 있는 배용석입니다.

스마트푸드 디엠은 당뇨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당뇨환자용 스마트푸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의 스마트푸드는 콩, 울무, 어성초, 돼지감자, 감초, 녹차 등의 천연곡물을 활용해 만든 당뇨환자용 식품으로, 당뇨병 환자 분들께서 식사 대용식으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메디푸드에 가까운 음식입니다.

농기자 창업계기와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배 학교에 다닐 때부터 식품과 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당뇨병으로 돌아가신 후, 당뇨를 연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의과대학과 미국의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당뇨의 치료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아산병원 등에서 관련 연구를 계속하였지만, 당뇨의 의학적 치료법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과 수술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중 췌장이식, 췌도이식, 소장절제술 등 수술을 통한 방법은 완치율이 높지만 수술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당뇨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싸고 접근성이 높은 약물 치료요법으로 당뇨를 관리합니다. 약물 치료는 혈당 조절을 통한 치료법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약물 사용이 누적되며 췌장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췌장의 기능 저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약물 요법은 당뇨를 완치시키기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지어 약물을 계속적으로 복용하더라도 상태가 악화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의 약물치료가 혈당 조절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췌장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한편 당뇨에 대해 연구할 때 개인적으로 건강이 악화되며 학부 때 공부했던 식품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활용해 스스로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경험을 살려 식품을 통해 췌장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당뇨를 치료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당뇨환자들을 위한 스마트푸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농기자 스마트푸드가 당뇨 환자들에게 또 다른 한줄기 빛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의 현재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사업이 확장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현재 1,000명 정도의 고정 고객들이 저희 식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고객층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저희 식품을 드신 후 “먹는 것을 조금만 바꾸는 것이 약보다 효과가 좋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때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저희 식품을 더 많은 고객들에게 부담 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파는 것도 비즈니스지만, 나누는 것도 비즈니스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 돈을 받지 않고 당뇨 환자들에게 저희 식품을 나누어 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매출의 30%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돈을 떠나 최대한 많은 분들이 스마트푸드를 드시고 효과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농기자 마지막으로 농생대 재학생들과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배 학부 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농촌의 면적이 도시보다 크고, 농업 인구도 많기 때문에 농업과 농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 학부 졸업 후 의학을 연구할 때는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식품 쪽으로 돌아올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농생대 학과 공부에서 배웠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음을 잊지 말고, 자신의 전공을 잘 살리길 바랍니다.

혹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사업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업이 초반에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모든 것을 올인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해보며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이므로, 사업을 홍보하는 데 있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학생기자단 제6기 송이레, 제9기 김민지, 제9기 김정효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29,193,557,312 원

기금출연 (2017. 10. 01.~2017. 12. 31.)

당기 누적금액 : 5,663,341,253 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윤대섭(농공학 49)	5,369,192,500	이철영(SPARC.과학기술혁신최고과정)	8,000,000	박승제(농공학 73)	300,000	이기훈(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150,000
김동준(최영환장학기금)	100,000,000	㈜다원케미칼	7,590,000	송인홍(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300,000	김대우(연구행정실)	90,000
이수일 장학회	30,000,000	㈜고추와옥중	7,000,000	최원(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300,000	서민영(수목원)	60,000
㈜유연장학회	25,000,000	농업자원경제학전공 교수 일동	5,709,000	후원자00184	300,000	하기호(남부학술림)	60,000
㈜현우그린	20,000,000	조경학과 84학번 동기회	4,000,000	강문성(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249,990	류준구(기획실)	30,000
대한사료주식회사	20,000,000	㈜엘씨에스	3,000,000	김준(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249,990	손창은(남부학술림)	30,000
김기선(식물생산과학부 교수)	15,000,000	㈜케미다스	3,000,000	손영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249,990		
무림피앤피(주)	10,000,000	송강산업㈜	2,400,000	이인복(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249,990		
이동근(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0,000,000	㈜스마트나노	2,000,000	최인규(산림과학부 교수)	249,990		
차상석(㈜한일사료 부회장)	10,000,000	지이오물랜트	2,000,000	최진용(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249,990		
		후원자00065	1,249,995	김성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240,000		
		오평환장학금 재직립	1,189,818	이삼규(농장)	200,000		
		김진실(농산업교육 93)	1,000,000	강성호(남부학술림)	150,000		
		최양부(농경제학 64)	1,000,000	우재성(산업인력개발학 05)	150,000		
		최희숙(농산업교육 12)	1,000,000	현진호(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150,000		

농업생명과학교육 · 연구센터 건립기금 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1,557,422,000 원

기금출연 (2017. 10. 01.~2017. 12. 31.)

출연 합계 : 808,372,000 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기부명	출연액
이현수(농화학 60)	522,972,000	이철영(SPARC.과학기술혁신최고과정)	7,000,000	강규영(농화학 68)	750,000
㈜농협은행 서울대학교지점	100,000,000	안효진(원예학 84)	5,000,000	서돈영(농화학 63)	300,000
심영근(명예교수)	30,000,000	백남천(식물생산과학부 교수)	3,000,000	정봉진(농학 73)	300,000
홍상욱(원예학 83)	30,000,000	정진화(농경제사회학부 교수)	3,000,000	하종규(명예교수)	300,000
아급농장	25,000,000	이학래(산림과학부 교수)	1,500,000	후원자00463	300,000
㈜백스코리아	20,000,000	이혜숙(식품공학 85)	1,200,000	김진모(농산업교육과 교수)	200,000
최윤재(농생명공학부 교수)	20,000,000	김기선(식물생산과학부 교수)	1,000,000	김용상(농화학 83)	150,000
㈜누보	10,000,000	손정익(식물생산과학부 교수)	1,000,000	임용재(농경제학 67)	150,000
농업회사법인(주)다비옥중	10,000,000	여환영(산림과학부 교수)	1,000,000	나승일(농산업교육과 교수)	100,000
박영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교수)	10,000,000	이강세(동물자원과학 89)	1,000,000	김동진(산림과학 14 김성혁 父)	90,000
		이은진(식물생산과학부 교수)	1,000,000	박준호(산림과학 02)	60,000
		이희재(식물생산과학부 교수)	1,000,000		
		최도일(식물생산과학부 교수)	1,000,000		

[동문동정]

- ▶ **김남균** 동문(임학 78)이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과 한국언론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17년 4차 산업혁명 파워 코리아 대전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 **이임영** 동문(임학 81)이 10월 18일에 '제16회 산의 날' 국립수목원 행사장에서 임업발전 유공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하였다.
- ▶ **이광복** 동문(식품공학 71)이 11월 2일 제54회 조선일보 광고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식음료 부문)을 수상하였다.
- ▶ **이수만** 동문(농공학 71)이 11월 16일 미국 유명 매거진 '버라이어티'가 선정한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 500에 이름을 올렸다.

[교수동정]

- ▶ **정중훈 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임기로 제27대 (사)한국농업기계학회 학회장에 당선되었다.
- ▶ **이인복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가 2017년 10월 6일 한국축산신문에 '축산업 변화의 변곡점 ICT 융합기술'을 주제로 축산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언을 기고하였다.
- ▶ **윤혜정 교수**(산림과학부)가 2017년 10월 25일 충남대에서 열린 한국펄프종이공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에서 제12회 '가산상'을 수상하였다.



- ▶ **이돈구 명예교수**(산림과학부)가 2017년 11월 24일 태국 Kasaset Univ.에서 태국 왕실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 ▶ **유상열 교수**(농생명공학부)가 2017년 11월 30일 제3회 대상한림식품과학상을 수상하였다.
- ▶ **김유용 교수**(농생명공학부)가 2017년 12월 5일 제20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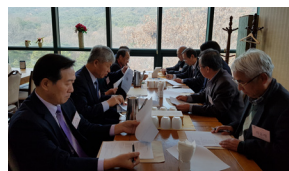
[동창회 소식]

▶ 2017년 동창회 평창 탐방



2017년 10월 12일 류관희 동창회장과 20여명의 동문들이 평창일원을 탐방하는 가을 여행을 다녀왔다. 동창회 일행은 이효석 문화관,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및 목장을 탐방하였다. 이번 여행을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다지고 동창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동창회 창립70주년 준비위원회 회의



2017년 11월 20일 2018년 동창회 창립7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류관희 동창회장, 이석하 명예회장, 서병륜 수석부회장, 구자옥, 박종열 상임부회장, 최운재, 하종규, 류기락 상임부회장, 조종수 감사, 유상열 상임이사가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농생대동창회는 1948년 4월 1일 창립되었으며, 2018년은 창립 70주년이 되어 5월 12일 상록의 날 창립70주년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 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림 T.880-4526 F.873-2031
목장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학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학 T.880-4824

농생명과학동기지원 T.880-4845 F.888-4847
식품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품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창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영·유통·유통고위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535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

★ 소식을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 880-4538, rjg2833@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